

올해 LPGA투어, 우승 경쟁 더 뜨겁다



▲ 왼쪽부터 고진영, 김효주, 신지애. 사진=뉴시스

'대회수 33개 대회, 총 상금액 1억1,800만 달러'. 2024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규모다. 대회당 357만6,000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 시즌 LPGA투어는 선수들의 우승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엔트리도 6월 24일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세계 랭킹 15위 이내에 4명 이상의

선수가 들어간 국가는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고진영(6위), 김효주(7위), 신지애(15위)가 '톱 15'에 진입해 있다. 그 다음이 리우 올림픽 멤버인 양희영으로 16위다.

올 시즌 새롭게 LPGA 투어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선수들의 랭킹도 지켜볼 만하다. 지난해 한국 무대 다승왕에 올랐던 임진희가 39위에 오른 가운데 함께 Q스쿨을 통과한 이소미와 성유진이 각각 56위, 67위에 위치해있다. 이들이 우승 또는 이에 근접한 성적을 낸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포인트를 바탕으로 세계 랭킹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골프는 2016년 리우 올림픽부터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했다. 당시 한국은 4명이 출전해 박인비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도 4명이 출전했으나 무관에 그쳤다.

2024 파리 올림픽에도 한국은 최대 4명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선수들 간의 우승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별한 가족' ... 이정후·고우석, MLB 홈페이지 메인 장식

동반 빅리거의 꿈을 이룬 '특별한 가족'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고우석(25·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메인 장식을 장식했다.



▲ MLB 공식 홈페이지 메인 장식을 장식한 고우석(왼쪽)과 이정후. 사진=MLB.com

16일 '뉴스1'에 따르면 MLB닷컴은 이날 절친에서 처남과 매제 사이가 된 이정후와 고우석이 가족이 된 사연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정후 고우석이 자신의 여동생과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는 "내 여동생과 사귀다고? 왜?" 라고 물으며 의아해했다.

고우석은 지난해 1월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의 딸이자 이정후의 여동생 이가현씨와 결혼, '바람의 가문'의 사위가 됐다. 그리고 약 1년 뒤 고우석과 이정후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나란히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이정후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와 계약기간 6년 총액 1억1,300만달러에, 고우석은 이달 초 샌디에이고와 계약기간 2년 총액 450만달러에 서명했다. 두 팀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소속돼 있어 이정후와 고우석은 메이저리그 첫 시즌부터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MLB닷컴은 "KBO리그에서 가장 주목 받는 두 선수는 가족의 인연을 맺고 경쟁이 치열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새로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며 "10대 시절부터 시작된 둘간의 대결은 이번 시즌 새 무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둘간의 대결에 주목했다.

나달, 사우디 테니스연맹 홍보대사



▲ 라파엘 나달. 사진=ausopen.com

스페인 출신의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이 사우디아라비아 테니스연맹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테니스연맹은 전날 나달을 이 연맹의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나달은 홍보대사로 일하며 사우디에서 테니스를 촉진하는 한편 테니스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AP는 나달이 이 연맹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사우디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고립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2034년 하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행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가 합병하는 일도 있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네이마르(브라질) 등 유럽 무대에서 뛰던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들이 사우디 축구 리그로 잇달아 이적하기도 했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가 스포츠 리그 및 스포츠 스타를 잇달아 유치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눈'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가리고 흥미 위주의 스포츠 행사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특히 사우디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